

충청투데이

“수소경제·그린뉴딜 선도 충남전략 마련하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제323회 임시회 도 경제실·미래산업국·공보관·충남도립대 주요업무보고에서 수소경제와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할 충남형 전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4·민주당)은 “그동안 충남은 화력발전이 따른 미세먼지·매연 등 환경피해, 선로 지중화율 전국 최하위 등의 불이익을 감내해왔다”며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충남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충남은 축산업이 발달한 만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도 그린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공휘 의원(천안4·민주당)은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등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민주당)은 “내포집단에너지 시설 추진에 아직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소수라 할지라도 꾸준히 사업의 필요성

을 설득해 달라”면서 “내포신도시 입주 계약 후 아직까지 미착공한 필지가 많은데 경제가 어려워 그런 것은 아닌지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통합당)은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이용률이 저조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길연 의원(부여2·통합당)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있어 여전히 도내 시군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라며 “낙후된 지역과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에너지보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선결조건이고 복지 충남의 실현 방안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octoday.co.kr

170 X 103 mm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소경제와 그린 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내포)허희만 기자

- 미래산업국·공보관 등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현)는 20일 제32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경제 실과 미래산업국, 공보관,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안장현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충남은 화력발전에만 따른 미세먼지?매연 등 환경피해, 선로 지중화율 전국 최하위 등의 불이익을 감내해왔다”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충남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정책, 그린팩토리 등 그린뉴딜의 핵심내용이 도의 추진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충남만의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라”면서 “미래형 수소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정책 전환 대응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이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도의 노력을 치하한 뒤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등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충남은 축산업이 발달한 만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도 그린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미래통합당)은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이용률이 저조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내포집단에너지 시설 추진에 아직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소수라 할지라도 꾸준히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달라”면서 “내포신도시 입주 계약 후 아직까지 미착공한 필지가 많은데 경제가 어려워 그런 것은 아닌지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확대되고 있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전시규모를 산정하고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기능을 확대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수익성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미래통합당)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있어 여전히 도내 시군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낙후된 지역과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에너지보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선결조건이고 복지 충남의 실현방안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수소경제·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해야”

최신웅 기자

충남도의회 기경위, 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제32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경제실과 미래산업국, 공보관,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안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아산4)은 “그동안 충남은 화력발전이 따른 미세먼지·매연 등 환경피해, 선로 지중화율 전국 최하위 등의 불이익을 감내해왔다”며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충남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정책, 그린팩토리 등 그린뉴딜의 핵심내용이 도의 추진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충남만의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라”며 “미래형 수소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정책 전환 대응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희 위원(·천안4)도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등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현지 생산하는 일본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과는 최대화하면서도 기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자립능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은 “내포집단지 에너지 시설 추진에 아직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소수라 할지라도 꾸준히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달라”면서 “내포신도시 입주 계약 후 아직까지 미착공한 필지가 많은데 경제가 어려워 그런 것은 아닌지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정의당·비례)은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충남은 축산업이 발달한 만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도 그린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또 “내포신도시 공원부지에 골프장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정한 신도시를 건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미래통합당·예산1)은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이용률이 저조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대전투데이

충남도의회 기경위,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김정환 kjhwan00@hanmail.net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충남도의회 기경위, 미래산업국?공보관 등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20일 제32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경제실과 미래산업국, 공보관,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충남은 화력발전에만 따른 미세먼지?매연 등 환경피해, 선로 지중화율 전국 최하위 등의 불이익을 감내해왔다”며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충남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정책, 그린팩토리 등 그린뉴딜의 핵심내용이 도의 추진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충남만의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라”면서 “미래형 수소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정책 전환 대응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이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도의 노력을 치하한 뒤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등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현지 생산하는 일본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과는 최대화하면서도 기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자립능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충남은 축산업이 발달한 만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도 그린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내포신도시 공원부지에 골프장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정한 신도시를 건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미래통합당)은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이용률이 저조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교통신호 체계가 혼잡하지 않을 때도 불필요하게 차를 세워야 하는 방식인데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감응식?터치식 교통신호기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내포집단에너지 시설 추진에 아직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소수라 할지라도 꾸준히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달라”면서 “내포신도시 입주 계약 후 아직까지 미착공한 필지가 많은데 경제가 어려워 그런 것은 아닌지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확대되고 있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전시규모를 산정하고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기능을 확대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수익성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미래통합당)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있어 여전히 도내 시군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낙후된 지역과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에너지보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선결조건이고 복지 충남의 실현방안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치] “수소경제.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이지웅 기자

도의회 기경위, 미래산업국·공보관 등 추진상황 청취

[투데이충남 내포/이지웅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제32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경제실과 미래산업국, 공보관,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안장현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충남은 화력발전에만 따른 미세먼지·매연 등 환경피해, 선로 지중화율 전국 최하위 등의 불이익을 감내해왔다”며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충남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정책, 그린팩토리 등 그린뉴딜의 핵심내용이 도의 추진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충남만의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라”면서 “미래형 수소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정책 전환 대응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이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도의 노력을 치하한 뒤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등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현지 생산하는 일본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과는 최대화하면서도 기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자립능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충남은 축산업이 발달한 만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도 그린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내포신도시 공원부지에 골프장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정한 신도시를 건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미래통합당)은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이용률이 저조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교통신호 체계가 혼잡하지 않을 때도 불필요하게 차를 세워야 하는 방식인데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감응식·터치식 교통신호기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내포집단지에너지 시설 추진에 아직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소수라 할지라도 꾸준히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달라”면서 “내포신도시 입주 계약 후 아직까지 미착공한 필지가 많은데 경제가 어려워 그런 것은 아닌지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확대되고 있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전시규모를 산정하고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기능을 확대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수익성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미래통합당)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있어 여전히 도내 시군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낙후된 지역과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에너지보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선결조건이고 복지 충남의 실현방안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세계타임즈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정부 '그린뉴딜정책' 추진 충남 권리 확보하라!



충남도의회 기경위,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충남도의회 기경위,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BreakNews

충남도의회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충남도의회 "수소경제와 그린뉴딜 선도할 전략 마련하라"

충남도의회 "수소경제·그린뉴딜 선도전략 마련해야"

"백제문화제 속에는 우리의 정신이 있다"

충남도의원들은 칸막이 좌석...공무원은 마스크만

"의혹 덮으려?" ...충남연구원, 인사·채용 관련 규정 삭제 '논란'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조속 추진 주문

충남도의회, '수소경제 그린뉴딜' 선도전략 마련 주문

매일일보

충남도의회 "수소 경제와 그린뉴딜 선도" 충남의 전략 마련 주문

MBS

충남도의회 기경위, 미래산업국 공보관 등 추진상황 보고 청취

안장헌 의원장 "정부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충남의 권리 충분히 확보해야"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설립 취지 맞는' 정책 수립 주문

충남도의회 행문위 '포스트코로나'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주문